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통해서 본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5월 14일 강의 계획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속임수 사건

(4) 탐욕에 대한 성찰

- 어떻게 해야 탐욕을 벗어놓을 수 있을까?

(5) 영적전쟁에 대해서

-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2티모 2,3)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에페 6,10 이하; 로마 13,12-14; 1테살 5,8)
- 악마를 부정하는 것은 위태로운 짓이다.
- 영적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는 우리 마음이다.

4.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급사(急死)

하나니아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꾸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내어다 물었다. 세 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는 그런 일을 모르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녀를 향하여 ‘당신들이 이 가격으로 밭을 넘겨주었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하자 그녀는 ‘예, 그 가격입니다’ 하고 말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어찌자고 당신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합니까? 이제 당신의 남편을 묻은 이들의 밭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당장 베드로의 밭치에 거꾸러져 숨을 거두었다(사도 5,5-10)

(1)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죽음은 쇼크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징벌이다

- ① 적절한 애도의 절차 없이 곧장 매장해버렸기에
- ② “떼어놓다”란 동사 노스피조(νοσφίζω)를 통해서

(2)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 이야기는 전설인가, 사실인가?

(3)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도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산헤드린의 두 번째 박해(사도 5,17-42)

1.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붙잡아 드림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사도 5,17-21)

- (1) “그러자”
- (2)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다시금 감옥에 갇혀라
- (3) “공영 감옥”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 와서 최고 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사도 5,21-26)

2. 산헤드린의 심문과 사도들의 신앙증언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사도 5,27-33).

3. 가말리엘의 중재 연설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 사실 예수 운동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사도 5,35-39)

“튜다가 일어나 자기가 무엇이냐 되는 것처럼 말하자 그 수효가 사백 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헤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호적등록 때에 갈릴래아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파멸하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사도 5,36-37)

(1) 가말리엘1세와 가말리엘2세

(2) 가말리엘1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마운 사람인가

4. 사도들이 박해받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함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증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만한 자격이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선포하였다(사도 5,40-42)

(1) 유대 최고 의회(산헤드린)가 가말리엘의 제안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임

- 39대의 매질을 가함

- 침묵명령을 다시금 내림

(2) “성전과 집에서”

(3) 영어 단어 martyr의 두 가지 의미: “증인” 그리고 “순교자”

(4)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됨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테살로니카 칙령이 발표됨

히브리계 신자들과 헬라계 신자들 사이의

충돌(사도 6,1-7)

1. 문제의 발생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흉대를 받았기 때문이다.(사도 6,1)

- (1) “그리스계/헬라계 유대인들”과 “히브리계 유대인들”
- (2) 언어권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구별되어짐
- (3) 헬라계 과부들의 보다 더 어려운 처지
- (4) “히브리계 사람들에게 불평을”

2. 문제해결을 위한 사도들의 결단

그래서 열두 사도는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일에 봉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영과
지혜가 동시에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된 일곱을 찾아내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우리 자신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전념하겠습니다.”(사도 6,2-4)

- (1)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선 사도들
- (2) 식량 배급 문제를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간주함
- (3) 식량 배급의 봉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
 - ① 평판이 좋은 사람
 - ② 영이 충만한 사람
 - ③ 지혜가 충만한 사람
 - ④ ‘영과 지혜가 동시에 충만한 사람’
- (4) 찾아내시오’(에피스케프토마이 ἐπισκέπτομαι)의 의미
- (5) 민주적 통치를 했던 사도들
- (6) 재정 권한 앞에서 내적 자유를 보였던 사도들

트라파자(τράπεζα)의 의미: ① 식탁, ② 재정

- (7) 사도들의 우선적 사명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전념하겠습니다.(사도 6,4)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일에 봉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사도 6,2)

- (8) 사목자들 그리고 말씀의 봉사자들을 향한 도전
 - ① 만일 우선적인 사명 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 ② 사목자는 행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3. 7명의 식탁 봉사자 선임과 안수

이 말이 모든 무리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 사람 스테파노와 그리고 필리포스와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은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사도 6,5-6).

- (1) 일곱 봉사자 명단
스테파노(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주인공); 필리포스(8장의 주인공)
- (2) 니콜라오

4. 몇 가지 질문들

- (1) 식탁 봉사자들은 헬라계 신자들뿐인가?
- (2) 일곱 봉사자들은 단순한 식탁 봉사자/재정 담당자들인가?
- (3) 일곱 봉사자는 부제(deacon)인가?

5. 식탁(재정) 봉사자들 임명의 결과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효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사도 6,7).

- (1) 교회가 발전하려면 영성과 조직(제도)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 (2) “수많은 사제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첫 순교자 스테파노(사도 6,8-7,60)

1. 스테파노가 반-성전주의와 반-율법주의로 고발당함(사도 6,11-15)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에 이른바 해방민들의 회당, 곧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들이 출석하는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사도 6,8-10 직역)

그 때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원로들과 율사들을 선동하고는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

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설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 준 관습들도 고칠 것이라고 스테파노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사도 6,11-14)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 있던 이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눈여겨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사도 6,15).

2. 스테파노의 자기변호와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사도 7,2-53)

2.1. 스테파노의 자기변호(사도 7,2-50)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 다윗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야곱 집안을 위하여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느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사도 7,1-50)

2.2.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사도 7,51-53)

“목덜미가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당신들도 거역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 가운데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오신다는 것을 예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의 배반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천사들이 반포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까.”(사도 7,51-53)

(1) 스테파노가 유다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꾸짖음

(2) 세 가지 단죄

①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

②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구원자 예수님을 죽였다

③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3)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단죄하는 말들이 나오다니?

3. 스테파노의 치명 사건(사도 7,54-60)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마음에 사무치게 격분하고 그를 노리어 이를 갈았다. 스테파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눈여겨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또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사람의 아들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그러면서 증인들은 자기들의 걸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 큰 소리로 ‘주님, 그들에게 이 죄를 씌우지 마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사도 7,54-60).

(1) 스테파노가 하늘의 비전을 봄

- ▶ “사람의 아들”
- ▶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심 ↔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
- ▶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는 스테파노의 영혼을 받으들이기 위해서

(2) 스테파노의 치명

- ▶ 사울(바오로) 부분은 나중에 그의 개종 사건에서 함께 다룰 것임

(3) 스테파노가 드린 두 개의 기도:

- ▶ 의탁의 기도
- ▶ 용서의 기도
- ▶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이는 순교의 특징

(4) “잠들었다.”

(5) 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

(6) 스테파노 순교가 갖고 온 효과들

4. 박해의 결과(사도 8,1.4)

그 무렵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의 복음을 전하였다(사도 8,1.4).

(1) “흩어졌다”(디아스페이로 διασπείρω) 단어의 의미

(2) 순교하는 것만이 장땡은 아니다

- ▶ 순교를 자칭해서는 안 된다

(3)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사도 11,1)

(4) 박해가 없었어도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지역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

- ① 사도들은 왜 예수님의 지상 선교명령을 즉시 수행하지 않았는가?
- ②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전도를 늦춘 것은 아니다.
- ③ 사도들은 그동안 토대 구축을 전념했던 것이다.